

강황(薑黃: 울금)

- 식용명 : 울금
- 학명 : Curcuma longa Linn
- 과명 : 생강과 (Zingiberaceae)
- 별명 (이명, 속명) : 심황(深黃), 황강(黃薑), 보정향(寶鼎香)
- 생약명 : 강황(薑黃)
- 분포지 : 열대 원산, 한국 남부지방
- 번식법 : 근경 번식
- 꽃 피는 시기 : 늦봄-여름
- 수확기 : 첫서리 내린 후 잎이 시든 뒤
- 용도 : 약용, 식용
- 약용 : 해독, 이담, 이혈, 건위, 이노, 해열, 소화, 급성 간염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

우리나라의 한약 공정에 따르면 강황과 울금은 그 기원식물이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강황(Curcuma longa Linn)이다.

"대한약전 외 안약규격집"에 따르면 이 식물의 '뿌리줄기'를 '강황(薑黃)' 또는 '조강황'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동일 식물의 '덩이뿌리'를 수확하여 그대로 또는 주피를 제거하고 썰서 말린 것을 '울금(鬱金)'이라고 수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울금을 "Curcuma aromatica의 뿌리줄기"로 수재하고 있다.

이 식물은 열대지방이 원산지로서 인도에서 재배되었으나 '한약재취취령'에 열역 3월에 재취하는 약으로 소개되어 있고, 조선초에 심황(深黃)이라 하여 비교적 기후가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상부는 파초와 비슷한 형태로 초장이 90-150cm 정도이고, 뿌리는 생강을 닮은 뿌리줄기(根莖)와 덩이뿌리(塊根)로 구분되어 있다.

잎은 크고 길이 30-90cm, 폭 10-20cm로 잎 끝은 뾰족하고 기부는 삼각형이며, 뒷면은 푸른색이다. 꽃은 수산화서로서 늦은 봄부터 여름에 걸쳐 피고 길이 약 30cm 정도이다. 포편(瓣)은 넓은 녹색으로 달걀형이며 길이 4-5cm이고, 화관은 황색이며 길이 2.5cm 정도이다.

뿌리는 생강과 비슷하나 근경은 피상이고 가로로 절단한 단면은 황색을 띠며 방향(芳香)이 있고, 생강보다는 가늘고 알하(荷)보다는 굵다.

재배법

강황은 열대지방 원산으로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잘 생육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유기질이 풍부한 사질 양토가 재배지로 적합하다.

적정 토양 산도는 pH6-7로 산성 토양은 교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조량이 풍부하고 통풍이 잘 되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경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온도 중 10℃ 이하에서는 부패하므로 온도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남 해안지역인 진도지방이 주산지이며 담양과 경남(산청) 일부, 충남 일부에서 재배되고 있다.

품종 : 시험연구 기관에서 육성하여 보급된 품종은 없고, 약 10여 년 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을 전남 진도지방에 보급하여 현재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헌기록에 의하면 강황(울금)류의 약재는 강황, 울금, 아출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강황'은 강황(Curcuma longa Linn)의 뿌리줄기를, '울금'은 강황(Curcuma longa Linn)의 덩이뿌리를, '아출'은 봉출(Curcuma zedoaria Roscoe)의 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봉출의 뿌리인 아출은 난황으로 환상의 피가 있고, 모근은 위쪽은 줄기가 자란 흔적이 있으며 아래쪽은 뿌리의 자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번식 : 울금(강황)은 종경(種莖)을 심어서 번식시킨다. 종경으로 사용할 것은 길이 약 5cm, 무게 약 20g 정도로 썬눈이 2-3개 정도 붙은 근경을 사용한다.

남부지방에서는 보통 4월 중-하순경에 밭에 정식하는데, 이랑을 60cm, 주간거리 35cm로 한 고랑에 한 줄씩 심는다.

심는 방법은 10-15cm 정도의 구멍을 판 후 한 구멍에 종경 한 개씩을 넣고 흙을 덮어 눌러준다. 종경은 10a당 4,700주를 기준으로 한다. 정식 전 뿌리 폴리에틸렌필름과 흑색 폴리에틸렌필름 또는 짚 등으로 멀칭을 하면 좋다.

주요 관리 : 새싹이 5-6cm 정도 자라면 제조작업을 해주고 토양이 습윤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병충해 예방법과 방제

강황(울금)은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가 되는 병충해는 없다.

약초의 효능과 한방 및 민간요법

◆ 사용 부위

강황은 강황(Curcuma longa Linn)의 뿌리줄기, 울금은 강황(Curcuma longa Linn) 또는 울금(Curcuma aromatica)의 덩이뿌리를 사용한다.

◆ 채취와 가공

재식 후 2년 가을에 채취가 가능하다. 보통 첫서리가 내린 후 잎이 시들면 수확을 시작하는데, 저장용으로 사용할 것은 첫서리가 내리기 전



에 수확하는 것이 보관을 위해서는 유리하다.

수확한 후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흙을 깨끗이 씻은 후 근경과 과근으로 구분하고 그대로 햇볕에 말리거나 수증기로 쪄서 햇볕에 말린다. 약용으로 사용할 것은 70℃에서 30분 정도를 쪄서 1-2주일 동안 그늘에서 말린 다음 건조하고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요즘은 보통 온풍 건조기에 건조한다.

◆ 성분

커큐민(Curcumin)이 주성분의 황색소 1-3%, 투르메론(Turmerone)이 주성분인 경우 1-5%, 녹말 30-40% 등이 주요 성분이다. 정유성분인 투르메론(Turmerone)은 쉽게 알과-투르메론과 감마-투르메론으로 바뀌며 특이한 냄새를 갖게 하는 불안정한 성분이다.

◆ 약효

간의 독성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으며, 담즙의 분비작용, 이혈작용 등이 뛰어나다. 따라서 이담작용과 방향성 건위제, 이노제, 소화제, 급성간염, 담낭염 치료약제, 담도염 약제, 카타르시성 황달약제, 담석증, 급성간염약제 등으로 쓰인다. 이 밖에도 민간요법으로서 방향성 건위약이나 통장약으로 쓰며, 코피, 토혈, 혈뇨 등에 사용한다. 이담작용, 위액분비 촉진작용, 이노작용 등에 복용한다. 보통 울금 6-20g을 가루로 만들어 먹거나 또는 달여서 하루 3-4회 차차피 마신다.

◆ 용법

우리나라 식물 공전에는 강황(울금)을 식중에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 가능한 약초이다. 한편 강황(울금)은 카레의 원료로 사용하며 조미료나 노란색의 식료 색소로도 이용

되고 천연 염료로도 사용된다. 커큐민 종이(Curcumin paper: 알콜 추출액에 종이를 담갔다 말려서 만든 노란색 시지름)를 만들어 분산과 알

모니아의 검출반응을 확인하는 화학 반응 확인용으로도 쓰인다.

저자 소개



김형중

남부대학교 한방재약개발학과 졸업

- 1974.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임사
- 1986.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취임, (현재 재임중)
- 1993. 전남 농민교육원 약초재배 강사 위촉
- 1995. 전남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 1996. 농림부장관 표창
- 1997. 전남남도 도지사 표창
- 2001. 시민법인 우리약초살리기 운동본부 이사 선임
- 2003. 전남남도 농업인 대상 수상 (유등기공 부문)
- 2005. 전남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강약용작물 교육 강사 위촉
- 2007. 전남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 2008. 전국 생약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취임
- 2009. 국민포장 수훈

피부감동 프리미엄케어
고품격 항산화 피부를 위한 올바른 스킨케어의 첫단계
바르샤 퓨어비타민
두가지만으로! 기초케어, 완벽하게.



바르샤 퓨어비타민 ① 항염에센스
VARSHA PURE VITAMIN C
AMPOULE ESSENCE
30ml

바르샤 퓨어비타민 ②
바이오 하이-모이스트 크림
VARSHA PURE VITAMIN C
BIO HI-MOIST CREAM
57ml



VARSHA
PURE VITAMIN

